

■ 인천 개항지 여행

# 개항 발자취 뒤로 켜켜이 쌓인 근대역사 흔적들

다른 듯 같은 또 다른 삶의 풍경을 만나기 위해 인천 차이나타운을 찾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국철 1호선 인천역, 시골 간이역을 연상케 하는 아담한 역사 건너편으로 붉은빛이 감도는 거리가 보인다. 이곳이 차이나타운임을 가리키는 페루 너머의 언덕에 그들의 삶이 펼쳐진다.

■ 두 얼굴의 도시 차이나타운

## 다른 듯 같은 또 다른 삶의 풍경

개항지 인천에 화교가 자리 잡은 것은 1884년. 개항 이듬해에 조선과 당시 청나라 사이에 맺은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 협정으로 수출업을 하던 중국인 5명이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야트막한 구릉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낮과 밤, 차이나타운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흥겨운 밤을 보낸 차이나타운이 늦은 오전 비로소 기지개를 켜다. 웅기종기 모여있는 낡고 작은 상점 처마 밑에 색색의 파차오가 하나 둘 걸리면 이곳의 하루가 시작된다. 가게 안에 웅크리고 있던 잡다한 기념품들도 바지런한 상인들의 손길에 좌판을 자리를 잡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한다. 차이나타운이라는 거창한 이름처럼 거창한 곳은 아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도, 근사한 풍경도 없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의 풍경이 있다. 작은 언덕길을 오르고 내려며 이들의 삶을 살짝 엿보는 게 이곳을 찾는 재미다. 즐비하게 늘어선 이곳의 음식점에서 만걸을 나선 나그네가 된 듯 중화요리로 허기를 채우는 것도 소박한 즐거움이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주렁주렁 매달린 흥동이 요염한 불빛을 내비친다. 화려한 황금색과 어우러진 붉은 가로등이 환히 밝혀지면 웅성거리던 역적스러운 동네는 화려한 밤거리가 된다. 차이나타운의 두 얼굴이다.



차이나타운 삼국지 벽화



차이나타운 거리와 월미도의 밤 풍경<위>.

■ 최초의 서구식 공원 자유공원

## 한·미·중, 인천 앞바다 품고 공존

삼국지를 읽은 사람과 얼굴도 마주하지 말라고 했던가? 차이나타운에는 삼국지가 있다. 삼국지의 명장면이 새겨진 벽화같이 자유공원의 도로 발길을 이끈다. 하나하나 책을 읽듯 벽화를 따라 올라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바다를 보고 우뚝 선 공자 동상이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자가 서있는 조계지 경계단을 두고 인천의 근현대사가 충돌하고 있다. 경계단 좌측으로는 청국, 우측으로는 일본의 조계지로 나뉘어져 상이한 건축 양식이 마주하고 서있다. 공자 동상 왼편으로는 도심을 벗어난 공원이 펼쳐진다.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이다. 총총걸음으로 옮긴 숲을 따라 올라가면 인천 앞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탁 트인 광장이 나타난다. 바빠 오가는 화물선 건너엔 월미도가 빼빼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원 정상에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선 동상이 하나 보인다. 맥아더 장군이다. 한미수호 동상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이 되던 1982년 세운 한미수교백주년 기념탑도 있다. 그리고 보니 숨가쁘게 돌아가던 시대 변화의 관문에 서있던 인천이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속에 맞물려 있다. 반 세기 전 참예한 이해관계 속에 물고 물려 있던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세 나라가 인천의 바다를 품고 공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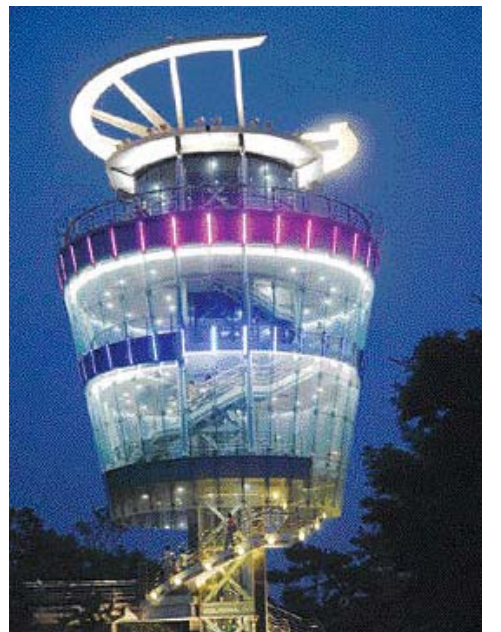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 인천상륙작전 전초기지 월미도

## 아픔의 역사 딛고 관광지 재탄생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월미도까지는 차로 5분여 거리다. 반달 꼬리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은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월미도'(月尾島). 일제강점기인 1922년 제방을 쌓기 시작하면서 섬이 아닌 섬이 된 월미도는 현재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치열한 아픔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인천 개항 이후 외세의 각축장이 됐고 인천상륙작전의 전초기지로 또 군사기지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1989년 7년 월미 문화의 거리 조성되면서 월미도는 인천 여행을 상징하는 곳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바다를 끼고 즐기게 늘어난 카페와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거리 뒤편에는 월미도만의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어 흥겨움을 연출한다. 오랜 기간 군부대의 보호지역이었다가 2001년 시민들의 품에 안긴 월미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월미공원의 전망대는 다양한 표정의 인천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제공=인천관광공사>



월미도 전망대

Advertisement for '대우일렉' (Daeu Electronics) featuring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Free up to 187 million won support) and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Energy saving 83% cooling/heating system). Includes contact info: 0621 252-2900.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featuring '6월 5일 OPEN' (Opening June 5th) and '최대 1000만원 지원' (Up to 10 million won support). Includes contact info: 062 671-1199.